



차이나

CHINA Market Report

마켓 리포트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3

이메일 : beijingk@kita.net

2023년 양회 이후 중국 신임 지도부 특징

목차

1. 국무원 총리 및 국가부주석
2.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3. 국무원 부총리 및 국무위원
4. 시사점

요약

-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 제14기 1차 회의(2023년 3월 4일~13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 지도부 고위직 인사가 확정됨
- 국무원 총리로 선출된 리창(李强)은 상하이, 저장성 등에서 지도자 경력을 쌓았으며, 부총리 경험 없이 총리가 된 역대 두 번째 사례
- 전임 상무위원이었던 한정(韩正)이 국가부주석에 선임, 이는 지난 2017년 상무위원에서 퇴임한 후 국가부주석에 취임했던 왕치산(王岐山)과 유사한 경우
- 자오러지(赵乐际)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공산당 서열 3위 자리에 올랐고 왕후닝(王沪宁)은 정협 주석 직책을 맡으며 정치국 상무위원에 유임됨
- 국무원 부총리에는 덩쉐상(丁薛祥), 허리펑(何立峰), 장귀칭(张国清), 류귀중(刘国中) 4명이 임명되었으며, 허리펑을 제외한 3명은 중앙정부 경험이 없음
- 국무위원직에 리상푸(李尚福), 왕샤오홍(王小洪), 우정룡(吴政隆), 천이친(谌贻琴), 친강(秦刚) 5명이 임명되었으며, 경제 부문 주요 부처 수장은 대부분 유임

1. 국무원 총리 및 국가부주석

■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 제14기 1차 회의(2023년 3월 4일~13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 지도부 인사가 확정됨

* 양회: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로 구성된 연례(매년 3월 개최) 회의로 '양회(两会, two sessions)'로 불림

● 시진핑 주석은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찬성 2,952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으로 3연임 선출됨

* 장쩌민(1993~2003), 후진타오(2003~2013) 전 주석은 2연임, 10년 집권

시진핑 3기 중국 고위인사



① 국무원 총리 : 리창(李强)

■ 리커창(李克强) 후임으로 리창(李强) 신임 총리가 선출됨

-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 당서기로 근무하던 2004년 비서장으로 임명되어 3년간 시진핑을 보좌한 경험이 있으며 지도부의 두터운 신임 하에 총리로 임명
- 부총리 경험 없이 총리로 선출된 경우는 초대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를 제외하고 처음임

■ 중국의 총리직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권력 서열 2위로, 행정부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 총리는 중국 정부 예산 집행을 총괄하며, 중국 내 사업권 및 인허가권, 해외 투자 등을 승인하는 등 국가 내정을 책임짐
- 세계 각국 정상들과 회담하는 등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무대에서도 높은 위상을 보유

■ 2013~2016년 저장성 성장, 2016~2017년 장쑤성 당서기, 2017~2022년 상하이 당서기 등의 요직을 거침

- 중국 최대 경제권인 장강삼각주 지역 상하이시, 저장성, 장쑤성에서 지도자 경험이 있으며 이는 부총리가 총리로 승진하던 기존 관례를 깨는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지난 33년간 전례를 보면, 상하이시 당서기를 역임한 인원들은 2008년 부패 혐의로 낙마한 천량위(陈良宇)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발되었음

■ 친 기업 성향을 가진 지도자로 평가

- 리창의 출생지인 저장성 윈저우시는 기업가 정신이 강한 뛰어난 사업가를 많이 배출한 도시로 유명하며 리창 역시 시장 친화적 성향으로 시장 개방을 중시함
- 지난 5년간 외국인이 상하이 거주 허가 문턱을 낮추고, 토지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5개의 신도시를 만드는 등 경제활동 기반 개선 조치를 시행함
- 상하이 당서기 재임 기간 많은 외국인 투자를 감독했으며 미·중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테슬라로부터 500억 위안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낸 바 있음

② 국가 부주석 : 한정(韩正)

■ 왕치산(王岐山) 후임으로 한정(韩正) 신임 국가부주석이 선출됨

- 한정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 국무원 부총리였으며, 지난 2017년 상무위원에서 퇴임한 후 이듬해 국가부주석에 취임했던 왕치산(王岐山)과 유사한 사례임

■ 국가부주석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속하지는 않으나, 국가주석의 업무를 보좌하며 주로 주석의 외교 업무를 돕는 역할을 수행

- 국가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을 받아 주석의 일부 직권을 대행할 수 있으며, 각국 정상 취임식이나 전직 정상 장례식 등에 특사 자격으로 파견되는 등 외교 의전 부분을 주로 담당

■ 2017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줄곧 중국 경제 수도인 상하이에서 근무하며 상하이 당서기와 시장 등을 역임

- 상하이방(上海邦: 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 인사인 한정은 외교 경험이 많고 2007년 7개월 동안 시진핑을 보좌한 이력 등을 보유

■ 한정은 외교 차원에서 수차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음

- 지난 2001년 상하이 부시장 신분으로 방한, 2012년 상하이 시장 신분으로 여수 국제박람회와 부산 방문,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중국 대표로 참석

2.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20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7명)

							
성명	시진핑 (习近平)	리창 (李强)	자오러지 (赵乐际)	왕후닝 (王沪宁)	차이치 (蔡奇)	당쉐상 (丁薛祥)	리시 (李希)
전직책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상하이시 당서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중앙서기처 서기	베이징시 당서기	국가주석 비서실장 (중앙판공청 주임)	광둥성 당서기
현직책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국무원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중앙서기처 서기	국무원 상무부총리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출생	1953년 6월	1959년 7월	1957년 3월	1955년 10월	1955년 12월	1962년 9월	1956년 10월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 자오러지(赵乐际)

■ 리잔수(栗战书) 후임으로 자오러지(赵乐际)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선출됨

- 2012~2017년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1기에 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을 역임하여, 당내 인사업무 총괄한 이력 보유
- 2017~2022년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직책을 맡았으며, 이번 시진핑 집권 3기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상무위원직을 유임

■ 중앙조직부장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근무할 때부터 지도부의 두터운 신임을 얻음

- 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인사책임자) 당시 중국내 반부패 운동에서 적발된 다수의 간부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책임자를 찾는 업무에 매진
-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당시 공산당 내 관료 위법행위 적발, 뇌물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

- 2003~2007년 기간 칭하이성 최연소 서기, 2008~2012년 기간 산시성 서기 약력을 보유,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한 2012년 이후 중앙 정계에 진출
- 지역 행정가로서의 광범위한 경험과 빈곤 완화 작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지도부의 신임을 얻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

②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 왕후닝(王沪宁)

- 왕양(汪洋) 후임으로 왕후닝(王沪宁) 정협 주석이 선출되었으며, 시진핑 주석, 자오러지와 함께 재임명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
- 19차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중앙서기처 서기 직책을 맡았으며, 이번 20차 상무위원회에서는 정협 주석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에 유임
-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요 참모이자 공산당 내 최고의 이론가로 평가됨
- 30년 동안 당내 최고 이론가로서의 입지를 다졌으며, 전 중국 국가주석인 장쩌민, 후진타오의 주요 외교 정책 슬로건 설정 당시에도 고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
- “중국식 현대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같은 시진핑 집권 3기 주요 통치 철학 및 정책이념 확립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주요 지방(도시)의 지도자 이력을 보유한 대부분의 상무위원과 달리 왕후닝은 학자 및 정책 고문 이력이 돋보임
- 1981~1995년 기간 상하이 푸단대학에서 정치이론을 가르쳤으며, 2002~2020년 에는 중앙 정책연구실에서 이데올로기 및 정치이론에 관한 주요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정책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3 중앙서기처 서기 : 차이치(蔡奇)

■ 왕후닝(王沪宁) 후임으로 차이치(蔡奇) 중앙서기처 서기가 선출됨

- 중앙서기처 서기는 중앙위원회 일상 업무를 총괄·조직하며 중앙위원회 회의 및 중앙서기 등의 중요 회의를 주재하게 됨
- 또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지도부의 인사 및 교육을 총괄함

■ 과거 푸젠성, 저장성에서 근무할 당시 10년 넘게 시진핑을 보좌해 왔으며 단기간 내 고속 승진한 이력이 있음

- 2013년 저장성 부성장 근무, 2014년 베이징소재 중앙국가안보위원회(NSC) 사무 부주임 근무, 2015년 중앙국가안보위원회 상무부 부주임(장관급)으로 승진, 2016년 베이징시 당 부서기 및 시장 대행, 2017년 베이징시 당서기로 승진
- 2017년 베이징 당서기로 임명되면서 중앙정치국에 합류

■ 저장성에서 근무할 당시 소셜미디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대중과 소통하여 국민 친화적 지도자로 부상

- 중국 주요 플랫폼인 웨이보에서 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며 대중이 남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적도 있으나 베이징 서기가 된 이후 사용을 중단함

4 국무원 상무부총리 : 덩쉐샹(丁薛祥)

■ 한정(韩正) 후임으로 덩쉐샹(丁薛祥)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선출됨

- 중국의 행정부인 국무원 최고 지도자인 총리 아래 4명의 부총리가 있고, 그중 가장 서열이 높은 부총리가 상무부총리임
- 상무부총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상업 및 거래 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

■ 정치에 정통하고, 기술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음

2023. 3. 29

- 공정기계학을 전공하고 상하이 재료 연구소에서 17년간 연구 경력을 쌓았으며 14년 만에 연구소 최고직까지 승진하여 전공인 과학분야에서 유능함을 인정받음
- 1999년 상하이시 과학위원회 부주임을 역임하였으며, 상하이시 구청장과 공산당위원회 조직 부 부부장을 거쳐 2006년 상하이시 당위원회 판공청 주임으로 승진함

■ 시진핑 주석의 과거 집정 10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

- 2007년 시진핑이 상하이시 서기로 근무하던 당시, 약 7개월간 상하이시 서기 비서실장으로 근무
- 2013년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오른 이후 중앙공산당 중앙판공청 부주임 겸 국가주석 판공청 주임으로 고속 승진함
- 중앙판공청 주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직책으로, 국가주석의 일정 조정, 기밀 서류 보고, 연락 등 업무 처리

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 리시(李希)

■ 자오러지(赵乐际) 후임으로 리시(李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선출됨

- 공산당 최고 반부패 감시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서 부패 척결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시 주석의 부친 시중원 전 부총리의 동료인 리쯔치 전 간쑤성 당서기의 비서를 지낸 경력이 있음

- 탈빈곤 목표를 제창해오던 지도부가 리시를 선출한 주요인 중 하나는 빈곤인구가 밀집된 서북지역(산시성, 간쑤성) 통치 경험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음

■ 간쑤성, 산시성을 시작으로 상하이에서 4년, 랴오닝성에서 3년, 광둥성에서 5년간 당서기, 부서기, 성장 등의 직책을 맡았음

- 2015년 랴오닝성 당서기 근무 당시 부패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지도부에서는 리시의 엄격한 당 기강 강화 요구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짐

3. 국무원 부총리 및 국무위원

■ 국무원 부총리에는 덩쉐상(丁薛祥), 허리핑(何立峰), 장궈칭(张国清), 류궈중(刘国中) 4명이 임명되었으며, 허리핑을 제외한 3명은 이전 중앙정부 근무 경험 없음

- 허리핑 부총리는 경제 부문, 장궈칭 부총리는 농업/상업, 류궈중 부총리는 보건/교육 부문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짐
- 허리핑 부총리는 전 국가발개위 주임(장관급)이었으며,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 사업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장궈칭 부총리는 국영 방위산업체 중국병기공업그룹(NORINCO) 사장 출신이며 국방 개혁, 경제 분야 전문가로 알려짐
- 류궈중 부총리는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하며 향후 지역 사회와 농촌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힘

■ 국무위원직에 리상푸(李尚福), 왕샤오홍(王小洪), 우정룽(吴政隆), 천이친(谌贻琴), 친강(秦刚) 5명이 임명되었으며, 국무위원은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원 부장(장관) 사이 중간 직책임

- 公安부장 왕샤오홍은 24년 만에 나온 경찰 출신이자 2000년대 초 시진핑이 푸젠성 성장으로 근무할 당시 개인 경호를 맡았음
- 비서장 우정룽은 리창 총리 비서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총리와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예상
- 천이친은 국무위원¹⁾으로 선출되었으나 중앙정치국²⁾에는 오르지 못했으며, 2018년 중국 중앙정법위 비서장을 맡으며 시진핑 반부패 캠페인 선두에서 업무 수행
- 외교부장 친강은 강한 군사력·경제력 기반 ‘힘의 외교’를 고수하는 전랑외교 대표 인사임

1) 중국 국무위원회는 총리, 부총리 4인(상무부총리 1인, 부총리 3인), 국무위원 5인으로 구성

2)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24명이며, 그중 7명은 상무위원이고 나머지 17명은 중국 공산당 주요 인사로 구성

4. 시사점

-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되고 새 지도부는 최측근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향후 1인 지배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전망
 - 상무위원 내 시진핑 국가주석을 견제할 세력이 사라지면서 집단 지도체제가 1인 지배 체제로 전환되고 장기 집권의 초석을 세웠다는 평가가 잇따름
 - 일각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한 상무위원간의 충성심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싱가포르 난양공대 조교수는 공청단(共靑團) 계파가 모두 퇴임하고 시자진(習家軍)만 남은 상황*에서 상무위원 간의 충성 경쟁이 과열될 수 있으며 향후 중국 더욱 위압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고 분석
- *중국공산당 3대 파벌: ①공청단(共靑團: 중국공산주의청년단에서부터 경력을 쌓아 실력자가 된 파벌로 후진타오, 리커창 등이 해당), ②시자진(習家軍: 시진핑을 따르는 계파), ③상하이방(上海邦: 장쩌민 집권 시 대거 발탁된 상하이 지역 간부들을 일컫는 말로 2010년대 중반 장쩌민 퇴임과 함께 영향력 상실)
- 외교·국방·공안 분야에서 새로운 인사를 대거 발탁한 행보와 다르게, 경제 부문에서는 주요 부처 수장이 대부분 유임
 - 워드 코로나로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경제 부문 인사가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 류쿤(劉昆) 재정부장,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등은 유임
 - 중국 중앙정치국이 25년 만에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천이친의 국무위원 선출은 중국 정치계에서 여성의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평가
 - 2018년 구이저우 첫 여성 성장, 2020년 구이저우 첫 여성 당서기를 역임한 천이친은 이번 시진핑 3기 중앙정치국에 입성할 거란 기대도 받았으나, 국무위원에 선출되는 데 그침

참 고 자 료

1. Reuters(<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wang-huning-backstage-ideologue-political-survivor-2022-12-11/>)
2. SCMP(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211322/officials-must-learn-hong-kong-talent-visa-row?module=perpetual_scroll_1&pgtype=article&campaign=3211322)
3. 아주뉴스(<https://www.ajunews.com/view/20221022182627528>)
5. Straitstimes(<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guangdong-chief-li-xi-set-to-be-china-s-new-anti-corruption-czar>)
6. 중앙(<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6549#home>)
7. 조선(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3/03/14/PRZUPXPNTFHI3BW2YKNNGZFDV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8. 이코노미조선(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1/07/2022110700004.html)
9.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30313067600074?input=1195m>)
10. Reuters(<https://www.reuters.com/world/china/beijing-party-chief-cai-uses-loyalty-xi-vault-top-rank-2022-10-23>)